

'88 · 년 · 도 · 대 · 한 · 양 · 계 · 협 · 회

주요사업추진실적

본회가 88년도에 추진한 사업실적을 보면 양계산물 소비촉진 홍보사업을 위시하여 종계검정 및 닭경제 능력검정사업, 월간양계지 및 양계속보 발간사업, 정책연구 개발과 수입개방 반대운동 등으로 요약된다.

1. 소비촉진 홍보사업

가. 계란 및 닭고기의 우수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소비를 촉진시키므로 양계산업 및 관련업계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코자 88년도에 예년과 다름없이 본회 임원, 유관단체 및 업체, 본회 회원들로부터 약 1억여만원의 홍보사업비를 협찬받아 여성월간 잡지를 비롯한 각종 신문, 잡지 등에 연 15회 TV, 라디오 등에 연 26회에 걸쳐 광고 또는 기사를 게재하여 계란 및 닭고기의 우수성과 국민건강 필수 식품임을 홍보하였다.

나. 제4회 닭고기 요리솜씨대회를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바, 많은 참관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현장에서 직접 조리솜씨를 겨누어 생동감있고 현실감있는 대회 진행으로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에서 많이 취재 홍보를 하여 주어 그효과가 컸다.

다. 전국 순회요리 강습회 및 시식회 9회,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지역의 6개 여자고등학교 및 전문대생 2,250명을 대상으로 우수성의 강의와 조리실습 및 시식회를 가져 각 학교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라. 새로운 홍보방법을 모색코자 주부, 국민학교 주부교사, 잡지, 신문등 식품담당기자를 대상으로 연3회에 걸쳐 그룹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전국의 대학생이상 기성디자이너를 대상으로 계란 및 닭고



기 소비촉진홍보 포스타(사진)현상공모를 실시하여 우수 작품 13점을 선정, 소비촉진 홍보용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다.

마. 단체급식소 또는 식당에서 계란 및 닭고기 요리를 많이 취급케 하기 위하여 10회에 걸쳐 기존의 조리사 3,843명과 76명의 영양사에 대한 교육(강습)도 실시하였다.

바. 도시락을 싸오지 못하는 서울시내 국민학교(15개교)불우아동 500명에게 주3회 계란을 공급하여 주위에서 높이 평가받았으며, 요리책자와 전단 등 계란 및 닭고기 소비촉진 홍보 인쇄물 21만1천부를 전국에 배부하였다.

2. 생산성 향상

가. 수입개방시 생산성 향상으로 국제 경쟁력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코자 계사 시설 및 환경개선, 체란계사업 안정화와 발전방향에 대한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현재까지 무각된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을 강구(추진)중 (체란계산업안정화 추진 협의회구성)에 있으며,

나. 질병대책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세미나 및 간

담회도 3회 개최하였고 선진 양계장시찰도 2회(국내 1회, 외국1회)주선하였다.

3. 닭경제능력 검정사업

닭의 자질개량으로 국제 경쟁력에 대응케하고 양계농가의 병아리선택의 지침을 제시코자 산란계 검정 연2군 6,032수, 육용계검정 연3군 10,164수를 실시하였으며, 검정이 완료된 4군(산란계1군, 육용계3군)에 대하여는 그 성적을 월간양계지에 공표하였다.

4. 유통(구조)개선

가. '85~'87까지 선정지원한 계열주체 6개소에 이어 88년에도 2개소(전북 이리 하림식품과 충남 논산 신기농장)의 계열주체를 추천하여 5억원의 자금을 지원받도록 주선하였고,

나. 선진지 시찰도 1회 주선하였으며,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좌담회 및 세미나를 4회 개최하였다.

5. 초생추 감별사 양성

감별사 수급에 원활을 기하고 감별사의 기술향상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초생추 감별사 자격시험을 2회 실시하였고 경진대회를 1회 개최하였다.

6. 정책연구개발

가. '87 및 '88 소득표준을 인하 건의

1만수 이상 양계농가의 현행 소득표준율이 현실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어(채란계 9%, 육용계 7.2%) 양계농가의 어려움이 많으므로 87년도 소득표준율을 채란계와 육용계 공히 무세로 하여 줄것을 농림수산부와 국세청에 건의하고 소득표준을 인하작업을 추진하였으나 채란계에 대해서만 20% 인하(9%에서 7.2%)하였고,

또한 88년도에도 채란계의 장기불황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였으므로 '88년도 채란계 소득표준율을 인하해 줄 것을 관계당국에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계속 과표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나. 양계산물 수입반대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

(2/17 경제기획원, 농림수산부, 상공부, 재무부, 민정당)'88.2.11. 개최된 '88정기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된 다음과 같은 대정부, 건의문을 관계요로에 제출한바, 경제기획원, 농림수산부, 상공부, 민정당에서 본회가 건의한 내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제고개선에 힘쓰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대정부 건의문 내용

1) 닭고기, 계란을 비롯한 축산물 수입반대

우리나라의 양계산업은 아직도 영세하고 경쟁력이 없을뿐 아니라 산업구조가 생산과 유통과 통합되어 있지 않아 수입이 개방될 경우 생산자의 몰락은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닭고기, 계란을 비롯한 축산물의 수입을 결사 반대한다.

2) 각종 세제 지원

국제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해 사료, 약품, 기계기구 등 생산 원자재에 대한 관세, 부가가치세를 이웃 일본, 대만 등과 같이 면세하여 주고 배합사료의 부가가치세를 철폐하여 주기 바란다.

3) 양계산물 규격 기준제정

우리 현실에 맞는 양계산물의 규격기준을 정하여 유통질서를 정상화하고 계산물의 품질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란다.

4) 자조금 제도 실시

자조금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를 하여 주기 바란다.

5) 가공처리 유통에 축협중앙회 직접참여

양계산물의 가격안정과 유통구조의 근대화로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생산자단체인 축협중앙회가 노계처리, 난가공 및 양계산물 전문판매점 개설등 가공처리와 유통업무에 적극 참여하도록 제도화하여 주



기 바란다.

다. 닭류코사이토준병 방역 대책 건의(4/7 농림수산부)

닭의 류코사이토준병 예방약품인 피리메타민이 발암물질로 밝혀짐에 따라 87년 6월부터 배합사료 첨가제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일부 사료공장이 이를 위반한다는 여론이 있어 이로인한 계란이 발암물질의 잔류 문제가 사회문제로 비화될시 양계산업에 큰나큰 피해가 예상되어 이에대한 대책을 농림수산부에 건의한 바, 피리메타민의 비공식 사용을 금지조치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라. 계분판매제도에 대한 질의 및 개선건의(4/11 농림수산부)

계분에는 수분이 많아 발효 건조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톱밥왕겨등을 첨가하는 예가 많은데 현행 비료관리법 제19조는 이를 금지하고 있어 계분의 비료화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양계장에서 직접 생산된 계분에 대하여는 운반수단으로서 포장을 자유스럽게 함은 물론 왕겨, 톱밥등 탈수제도 사용하여 효율적으로 계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농림수산부에 건의한바, 봉합을 하지 않은 가마니, 마대, 지대등에 계분을 담아 운반하는 것은 가능토록 조치하였으며, 계분을 발효시키거나 계분에 톱밥, 왕겨등을 첨가할 경우는 비료생산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회신을 받았다.

마. 양계사육수수 가격에 따른 잉여계사 활용 대책건의(6/16농림수산부)

과잉생산에 따른 불황이 장기간 계속됨에 따라 가격안정을 기하고자 자율적인 사육수수 감축운동을 전개할바, 사육수수 감축에 따른 잉여계사(비워있는 계사) 활용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시세가 약간 회복되면 재 입식하는 등 실효를 거둘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계사를 공장용 건물로 용도 변경이 가능토록 밀접한 공장에 대하여는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바. 채란계와 육용계 협동조합 분리설치 절의 및 건의(6/13농림 수산부)

업종별 축산업협동조합을 설치함에 있어 양계분야는 채란업과 육계업은 전혀 다른 업종으로서 유통구조면에서도 완전히 상이하므로 채란과 육계가 혼성된 양계협동조합의 조직은 전문화추세등 제반여건을 감안할때 바람직스럽지 못할뿐 더러 서로의 이해가 엇갈려 분쟁만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차체에 채란업과 육계업을 별개의 협동조합으로 설립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강구하여 주실 것을 건의한바 축협법등 관련법을 개정시 신중히 검토 처리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

사. 양계산물 공판장 및 계란 가공장 설치 건의(5/17, 6/24 농림수산부, 축협중앙회)

양계산물의 전근대적인 유통구조로 말미암아 중간상인들의 담합행위 등으로 양계산물 가격이 결정되므로 생산자는 제값을 받지 못하며 산지가격이 떨어져도 소비자 가격은 별로 떨어지지 않아 생산자와 소비자가 다같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방안의 일환으로 대도시에 양계산물 공판장 및 계란가공장을 설치 연계운영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으나 현 여건하에서는 민간사업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막중한 사업이므로 축협중앙회에서 설치 운영토록 하되 우선 1차적으로 서울시 농수산물 도매시장내에 설치하여 줄것을 서울시 당국과 서울시 농

수산물 도매시장 관리공사측과 사전협의를 거쳐 농림수산부 및 축협중앙회에 건의하였다.

아.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조치 건의(6/15 4개 생산자단체 공동으로 내무, 건설, 농림수산부 및 4개 정당)

'88년도 초반부터 중반까지 정부의 위법 건축물 일제단속으로 대부분의 양축농민들이 불안하며 고충을 겪고 있으므로 양축농민이 편안한 가운데 안정감을 갖고 생업 수단인 양축업에 종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키 위하여 생산자 4개 단체공동 명의로 '87년도 말 이전에 건축한 무허가 축사(간이계사 포함)에 대하여는 전면 양성화조치(농지전용 비용 면제포함)하여 줄 것을 요로에 건의한 바, 건설부로부터 양성화조치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아 대책방안을 연구중에 있다.

자. 축산정책 개선 건의(7/23 농림수산부, 감사원 4개정당)

농축산물의 수입개방에 따른 국제화시대에 양축농민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은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 절감을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므로 이를 위하여 현행 축산 관련제도와 법규 및 정책을 경쟁국과 대등한 여건으로 개선하여 줄 것을 한국축산 관련단체 협의회와 축산관련 9개단체 명의로 농림수산부, 감사원, 4개정당 등에 강력히 건의하였다.

차. 국산 옥수수를 배합사료 원료용으로 사용 중지 요청

(11/30 축협중앙회, 사료협회)

국내 옥수수 재배농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외국 옥수수보다 약4배가 비싼 국산 옥수수를 배합사료용 원료로 사용하고 있음은 연간 약160여억원의 사료값 인상부담을 축산농가가 부담케됨은 부당한 처사이므로 축협중앙회와 사료협회에서는 국산 옥수수 사용을 일체 중지하여 배합사료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생산자 3개단체 명의로 일간지 및 축산관련 신문에 호소문을 게재하고 회장이 직접 농림수산부 고위 정책 담당자를 면담하는 등 강력히 건의하였으나 국산

수매곡물의 사료 이용율은 1% 수준에 불과하며 여타분야와의 균형측면을 고려하여 취한 조치이니 이해하여 달라는 당국의 요청이다.

7. 간행물 발간사업

가. 월간양계지를 매월 1회(연12회 60,200부)발간하여 전회원 유관기관, 전국 시도군청 및 농촌지도소, 지역축협, 농고, 농전농과대학까지 무료로 배부하여 최신 국내의 산업정보를 신속히 소개하고 정책제안자로서 또한 양계인 권익보호의 대변지로서의 역할을 다하였으며,

나. '88카렌다 다이어리 2,000부들 제작하여 전회원 및 유관기관, 단체업체에 배부하였다.

8. 조직강화

가. 양계인 신년인사회 개최

본회 고문 및 자문위원, 임원, 분과 및 전문위원, 유관기관 관계관을 모시고 '88.1.7 신년인사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나. 분과위원회 개최 및 신가입 회원

업계의 당면문제를 토의하여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정보교환으로 사업운영에 기간자료로 활용키 위하여 각 업종별분과위원회를 연27회 개최하였으며, 62명의 신가입회원을 영입하였다.

다. 임직원 연수교육 및 단합대회 개최

임원(회장단, 각도지부장, 지부 분과위원장 및 분회장)과 직원간의 친목과 단합을 기하고 심신을 단련하기 위하여 88년 6월 9일~10일(2일간)전북 금산사에서 임직원수련 및 단합대회를 개최하였다.

라. 전국 양계인 및 육계인대회 협조

88년 2월 5일과 88년 10월 13일 개최된 전국양계인 및 육계인대회에 본회가 적극 협조하였다.

바. 협회기 및 뺏지 제작 배부

회원들에게 협동단결과 참여 의욕을 고취 시키고

자 함차게 발전해 나가는 양계업계의 단결된 모습과 희망찬 목표를 향해 약진하는 협회의 참모습을 대외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하여 협회를 상징하는 협회기를 제작하여 본회 및 각도지부에 게시하였으며, 협회 뺏지를 제작, 전회원에게 배부하였다.

9. 정보전달

매년 계속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양계산물 일일시세를 조사하여 통보함과 동시에 양계업계의 새소식과 양계산물 시세동향 및 수급사료 생산량, 금후전망 및 대책등을 수록한 양계속보를 매주 1회(1회당 2,000부 연간 50회)발행하여 회원 및 관련업체에 배부하였고, 양계업계에 도움을 주고자 축산신보에 양계정보 고정란을 설치하여 매주 1회 양계에 관한 각종 정보 및 대책을 본회가 기고하고 있다.

10. 기 타

88년 2월 9일 08시에 서울역 광장에 많은 양계인이 운집하여 양계산물 수입반대 캠페인을 전개한 바 MBC-TV에서 생중계를 함으로써 전 양계인의 의지를 국민에게 표시하였다.

일부 가공업체에서 닭고기 대체식품인 칠면조 고기를 수입한 사실을 인지하고 강력히 항의 한바 즉시 수입을 중지하고 향후 수입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서면으로 받았다.

11. 부진사업

당초 계획한 사업에 대하여 목표대로 시행코자 노력은 하였으나 양계인 단합을 위한 조직 일원화 문제, 미등록 종계장 및 무허가 부화장 파악조치, 전국 종계부화인 교육 및 회원 실태조사 등은 일부 회원들의 협조 결여와 협회의 한정된 인원으로 능력이 미치지 못하여 실시치 못하였다.

'88주요사업추진 세부계획대 실적표

사업명	세부사업명
1. 소비촉진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순회요리강습회(메뉴 개발보급등) ○제4회 전국 닭고기 요리솜씨대회 ○여고, 여대 조리실습 ○국민학교 급식지원(급식담당자 교육 및 시범교 급식지원등) ○생산자 계도 순회강습회 ○그림 간담회(편집자 및 소비자) ○포스타(사진) 현상공모 ○조사연구사업(닭고기 계란 우수성 조사연구, 소비자반응 기호도 조사) ○광고 게재홍보(신문잡지광고 및 기사게재) ○닭고기, 계란 우수성 인쇄물 제작배부(요리책, 홍보책자, 가계부, 전단등) ○양계산물 시범판매업소 시상 ○매스컴 활용 보도(TV, 신문, 잡지 등) ○홍보사업 추진협의회 및 간담회 개최(전문가 자문회등) ○조리사 보수교육 ○영양사대상 요리강습
2. 생산성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심포지움 개최 나. 강습회(세미나) 개최 다. 양계연수생 해외파견 라. 선진양계장 시찰추진
3. 생산 조절 및 가격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자율생산 조절유도 ○계란 및 육계전망 분석 발표 ○육용계 생산잠재력 추정 발표 ○계산물 생산비 조사 발표 ○계산물 소비수요 추정 발표 나. 계산물가격안정협의회 개최 다. 세미나 또는 좌담회 개최 라. 가격안정을 위한 수매비축 협조
4. 종계 개량 및 종계장 보호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종계 일반검정실시 나. 미등록종계장 및 무허가 부화장 파악 및 조치 다. 종계일반검정실적 공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라. 종계수입실적 공표 마. 종계업등록 및 부화업 허가사항 공표 바. 전국종계부화인 교육
5. 닭경제능력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산란계 검정 ○21회 검정('87입식분) ○22회 검정('88신규입식) 나. 육용계 검정 다. 검정위원회 개최 라. 검정성적 발표
6. 유통(구조)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88계열주체선정 및 지원협조 나. 계산물 직판장 설치협조 다. 계산물 고시방법 개선 라. 선진지 시찰추진 사. 세미나 간담회(좌담회) 개최
7. 초생추감별사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감별사 자격시험 개최 나. 감별사 경진대회 개최
8. 정책연구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도개선책 연구(대정부 및 유관기관에 건의)
9. 간행물 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월간양계지 발간 나. 편집위원회 및 좌담회 개최
10. 조직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양계인 신년인사회 개최 나. 협회 활성화 ○각분과위원회 개최 ○지부 및 분회 업무 확인지도 ○회원실태조사 다. 임직원연수교육 및 단합대회 개최 마. 전국양계인대회 협조 바. 전국육계인대회 협조 사. 협회기 및 뺏지 제작 배부
11. 신속한 정보전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계산물일일시세 통보 나. 양계속보(시세업서) 발간 다. 축산신보에 양계정보 고정란 설치
12. 방역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계군 혈청검사 나. 추백리 진단액 공급
13.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양계산물 수입반대 캠페인 나. 칠면조고기 수입저지